

## 「玉龍賦」에 대한 연구(1)

방정균<sup>1</sup> · 장현준<sup>2</sup> · 이준무<sup>2</sup>

상지대학교 <sup>1</sup>원전역사학교실, <sup>2</sup>경혈학교실

### The study on 「YuLongFu」(1)

Jung-Kyun Bang<sup>1</sup>, Hyun-Jun Jang<sup>1</sup>, Joon-Moo Lee<sup>2</sup>

Dept. of <sup>1</sup>Oriental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sup>2</sup>Meridian & Acupoint,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ersity

#### Abstract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symptoms of a disease and to elucidate the meaning and rationale of point selection in YuLongFu.

**Methods:** We translated YuLongFu into Korean and analyzed symptoms based upon a comparison of YuLongFu with YuLongGe. The meaning and rationale of point selection in YuLongFu was then inferred from the analysis above.

**Results and Conclusions:** Total 46 points (6 points were repeated) were used in YuLongFu. These points included the collateral Meridian, the four seas, five shu points, lower confluent points, yuan points and eight influential points. Moxibustion and pricking blood therapy were used twice. Generally, there are a lot of diseases caused by stagnation of Qi and blood in YuLongFu. Point selection, therefore, was usually aimed at promoting flow of Qi and blood.

**Key words :** YuLongFu, YuLongGe, pricking blood therapy, moxibustion

### I. 序 論

「玉龍賦」는宋代 楊氏가 저술한「玉龍歌」의 내용 가운데 精華만을 뽑아 賦의 형식으로 서술한 것으로 『針灸聚英』에 실려 있던 것을 『針灸大成』에서 인용하고 있다. 『針灸聚英』의 저자인 高武는 明代人으로 號는 梅孤이다. 일찍이 武科에 합격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醫學에 전념하였다. 특

히 針灸學 분야에 장점이 있었고 『針灸節要』, 『針灸聚英』 등의 저서를 남겼다. 그의 대표저서인 『針灸聚英』은 1529년에 완성되었고 모두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16세기 이전의 침구문헌의 이론과 치료경험을 수집하였고, 동시에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였다. 특히, 제 4권은 針灸歌賦 60여수를 인용하였는데, “世俗喜歌賦以其便于記誦”이라는 인식하에 歌賦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니, 「玉龍賦」는 그 가운데 하나이다<sup>1)</sup>. 본 논문에서는 「玉龍賦」의 일부를 번역하고 아울러 제시된 병증을 분석하여 取穴

· 교신저자: 이준무,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660,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Tel. 033-730-0662, Fax. 063-857-6458, E-mail: jmlee@sangji.ac.kr

· 투고: 2006/08/22 · 심사: 2006/09/06 · 채택: 2006/09/11

의 이유와 의의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 II. 研究方法

1. 『針灸聚英』(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을 底本으로 하여 原文을 기재한다.
2. [注釋]에서는 字解와 病症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기재하고, 아울러 「玉龍歌」와 비교를 겸한다.
3. [解釋]은 逐字해석을 원칙으로 하되, 「玉龍歌」의 내용을 참고로 하고 病症의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약간의 의역을 하였다.
4. [考察]에서는 病症의 분석을 바탕으로 取穴의 의의와 이유를 설명하였다.

## III. 本 論

### 玉龍賦<sup>(1)</sup> 『聚英』

#### [注釋]

- (1) 玉龍賦 : 「玉龍賦」는 「玉龍歌」의 精華만을 뽑아 賦의 형식으로 서술한 것이다. 「玉龍賦」에서는 총 102개의 穴을 소개하였고 84症을 치료한 경험을 소개하고 있다. 그 가운데 頭面·五官·頸項·肩背의 질환이 21症이고, 胸腹部와 四肢의 질환이 21症, 婦人科와 小兒科의 질환이 4症, 內傷과 外感이 21症, 痔·疝·大小便 및 기타 질환이 17症이다. 치료에 사용된 穴을 분석해 보면 表裏가 되는 經絡의 穴을 配合

한 경우와 八脈交會穴, 俞穴 및 募穴의 사용이 主를 이루고 있다. 玉龍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에 대해서는 貴重하다는 의미를 취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sup>2)</sup>.

한편, 玉과 龍의 字義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玉은 구슬을 뜻하는 것으로 색이 빛나고 소리가 퍼 드날리고 바탕이 깨끗한 아름다운 돌을 이룸 하여 玉이라고 하는 것이다. 玉은 篆書에는 점이 없다가 隸書에서부터 점을 보태어 쓰여 왔는데, 帝王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三은 하늘·땅·사람인데, 이 天地人에 참여하여 통달한 사람이 王이라는 의미가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몸이 하늘·땅·사람의 三才에 통달한 사람이라야 비로소 王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가운데 획이 위의 획에 가까이 함은 왕이 하늘을 본받는 의미이다. 한편, 龍은 비늘 동물의 우두머리로서 어둡게 할 수 있고 밝게 할 수 있고 가늘게 할 수 있고 굵게 할 수 있고 짧게 할 수 있고 길게 할 수 있으면서, 春分이면 하늘에 오르고 秋分이면 연못에 잠기는 것이다. 글자의 형상을 살펴보면 풍만한 몸체에 비늘이 덮이고 신비하게 변화하여 날 수 있는 영험한 동물을 뜻하는 것이다<sup>3)</sup>.

#### [原文]

夫參博以爲要, 輯簡而舍煩, 總玉龍以成賦, 信金針以獲安.

#### [解釋]

많은 것을 참고하여 요약하고 간략한 것을 모으며 번거로운 것을 버려 玉龍이라고 총괄하

## 「玉龍賦」에 대한 연구(1)

여 賦를 완성하니 진실로 針으로써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

### 【原文】

原夫卒暴中風，頂門<sup>(1)</sup> 百會；脚氣連延<sup>(2)</sup>，里<sup>(3)</sup> 絕<sup>(3)</sup> 三交<sup>(3)</sup>。

### 【注釋】

- (1) 頂門：督脈에 속하는 顛會穴의 異名이다.
- (2) 脚氣連延：“脚氣”는 다리 힘이 약해지고 저리거나 지각 이상이 생겨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병증이다. 濕邪와 風毒이 침범했거나 음식을 가려먹는 등으로 氣血이 제대로 돌지 못하거나 濕이 몰려서 생긴다. “連延”은 연속되는 모양을 뜻하는 말로, 여기서는 中風이 발생한 후 脚氣症이 연이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 (3) 里<sup>(3)</sup> 絕<sup>(3)</sup> 三交：『鍼灸大成校釋』에서는 각각 足三里<sup>(3)</sup> 絕骨<sup>(3)</sup> 三陰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sup>2)</sup>.

### 【解釋】

갑작스러운 中風에는 頂門穴과 百會穴을 쓴다.；(中風症에) 脚氣症이 이어져 발생할 때는 足三里, 絕骨, 三陰交 穴을 사용한다.

### 【考察】

- (1) 中風은 초기에는 外風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인식되다가, 宋代를 거쳐 金元代에 이르게 되면 內風說이 主를 이루게 된다. 內風說의 要旨는 “熱極生風”과 “腎

不涵木”으로 인한 “肝陽化風”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본문의 中風이 外風인지 內風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中風에 이어져 脚氣症이 발생하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볼 때 內風說을 염두에 둔 편집으로 추정할 수 있다.

- (2) 頂門과 百會는 모두 督脈에 속한다. 頂門穴은 安神醒腦, 清熱消腫의 효능이 있어 癲疾, 小兒驚癇, 頭皮腫, 面赤腫, 頭痛眩暈 등을 치료한다. 百會穴은 熄風醒腦, 升陽固脫의 효능이 있어 頭風中風, 言語蹇澁, 半身不遂, 驚悸健忘, 心神恍惚, 小兒風癇驚風, 癲疾, 脫肛, 頭痛目眩, 陰挺, 鼻塞 등을 치료한다. 특히, 百會穴은 四海 가운데 髓海인 腦의 所通穴이므로 精髓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中風症에 응용될 수 있다<sup>4)</sup>. 또한, 足太陽經, 手少陽經, 足少陽經, 足厥陰經, 督脈經이 모두 百會穴에서 만난다. 足厥陰經과 足少陽經은 안으로 肝膽에 속하게 되는데, 肝膽의 안에는 相火가 있기 때문에 風木의 증상 특히 內因으로 인한 中風을 다스린다. 아울러 足太陽經은 일신의 바깥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外因으로 인한 中風을 치료한다<sup>5)</sup>. 이와 같이 百會穴은 內因과 外因을 불문하고 中風을 치료하는 要穴이다. 한편, 楊繼洲는 이 두 穴로 中風을 치료할 때 뜸을 이용할 것을 제기하고 있다<sup>2)</sup>.
- (3) 「玉龍賦」에서 제기한 “脚氣連延”은 중풍

에 의해 유발되는 脚氣症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玉龍歌」에서는 “寒濕脚氣”라고 표현하면서 치료 穴은 동일하게 足三里, 三陰交, 絕骨穴을 제시하고 있다<sup>2)</sup>. 이 두 편의 내용을 연계하여 본 편에서 제기한 脚氣症을 이해해 본다면, 中風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氣血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결과 寒濕이 쌓여 脚氣症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4) 足三里穴은 足陽明胃經에 속하는 穴로 和胃健脾, 通腑化痰, 升降氣機의 효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胃痛, 嘔吐, 腹脹, 頭暈, 癲狂, 脚氣, 水腫 등의 질환을 치료한다. 한편, 足三里穴은 四海 가운데 水穀海인 胃의 所通穴이며, 足陽明胃經의 五輸穴 가운데 合穴에 속하고, 六腑下合穴의 하나로 胃의 下合穴에 속한다. 특히, 下合穴의 경우 六腑의 질환을 조절하는 것으로 疏通과 下行을 주된 기능으로 보고 있다<sup>4)</sup>. 이상의 여러 가지 정황을 참고로 할 때 足三里穴은 胃의 腐熟기능을 도와 濕이 積滯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水穀之氣의 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사지 말단에 氣血(영양)을 공급하고 氣血의 순환을 돕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絕骨은 八會穴의 하나인 髓會에 해당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穴을 지칭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가들마다 의견이 달라 陽輔, 懸鍾, 玉枕穴 등의 3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內經』에서 髓海를

腦라고 한 것을 염두에 두고 각 穴의 주치증과 髓海의 증상을 비교할 경우 髓會인 絕骨은 玉枕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sup>6)</sup>. 그러나 본 편의 증상이 下肢에 나타나는 脚氣症이고 또한 絕骨의 의미가 뼈이 끊어진 곳을 따라 髓가 滋養되는 뜻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sup>4)</sup> 본 편에서 제시한 絕骨은 陽輔나 혹은 懸鍾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氣血이 공급되지 못하여 발생한 脚氣症에 髓를 滋養해주는 의미로 絕骨을 응용할 수 있는 것이다. 三陰交穴은 足太陰脾經에 속하는 穴로 健脾利濕, 兼調肝腎의 효능을 가지면서 脾胃虛弱, 飧泄, 消化不良, 水腫, 足痿痺痛 등의 증상을 치료한다. 아울러 十二經의 標本을 구분할 때 三陰交穴은 足太陰脾經의 本部에 해당된다. “急則治其標, 緩則治其本”과 正氣를 補할 때는 本을 사용하고 邪氣를 제거할 때는 標를 사용한다는 원칙<sup>4)</sup>을 염두에 둔다면, 三陰交穴은 正氣를 補하여 氣血의 순환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돕고, 이러한 기능을 통해 中風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하는 脚氣症을 치료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 [原文]

頭風<sup>(1)</sup>鼻淵<sup>(2)</sup>, 上星可用; 耳聾顯腫<sup>(3)</sup>, 聽會偏高.

#### [注釋]

## 「玉龍賦」에 대한 연구(1)

- (1) 頭風 : 頭痛의 하나. 두통이 낮지 않고 오래 계속되면서 때에 따라 아팠다 멎었다 하는 것을 말한다. 風寒이나 風熱의 邪氣가 침범하거나 瘀血, 痰이 머리의 경락에 몰려서 생긴다. 혹은 머리에 風邪를 받아 생긴 병증을 통괄하여 頭風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 (2) 鼻淵 : 코 안에서 누렇게 냄새나는 분비물이 나오는 병증. 肺經風熱, 脾胃濕熱, 膽經의 熱, 肺經鬱熱, 肺脾氣虛로 생긴다. 「玉龍歌」에서는 비연의 증상을 맑은 콧물이 흐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sup>2)</sup>.
- (3) 顛腫 : 疔顛라고도 한다. 時行疫毒을 받은 다음 胃腸의 熱毒과 肝, 膽의 鬱火가 少陽經에 몰려서 생긴다. 지금의 유행성이하선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解釋]

頭風과 鼻淵에는 上星穴을 쓸 수 있다. ; 귀가 먹고 뺨이 붓는 증상에는 聽會穴만이 치료 효과가 높다.

### [考察]

- (1) 上星穴은 督脈에 속하는 穴로 陽熱을 泄시키는 효능이 있어 각종 鼻病을 치료할 수 있는 要穴로 알려져 있다<sup>5)</sup>. 구체적으로 효능을 살펴보면 熄風清熱, 寧神通鼻하는 효능이 있어 鼻淵, 鼻衄을 포함한 각종 鼻病과 頭痛, 眼痛, 癲狂 등을 치료한다<sup>4)</sup>.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할 때 본문의 頭風 증상은 鼻淵에 수반되어 나타나

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발병 원인은 熱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鼻는 肺의 外竅이므로 鼻淵의 증상은 肺의 熱證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肺는 氣를 주하면서 宣發, 肅降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熱로 인해 氣를 宣通시키지 못함으로 인해 熱이 더욱 응체되고 氣가 上逆할 수 있다. 그 결과 鼻淵症이 발생함과 아울러 頭痛을 수반하는 頭風症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 (2) 聽會穴은 足少陽膽經에 속하는 穴로 開竅聽耳, 舒筋活絡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고 耳鳴, 耳聾, 聽耳流膿 등의 귀와 관련된 질환 및 頭面痛, 口眼喎斜 등의 질환을 치료한다. 대체로 귀와 관련된 질환을 치료하는 要穴로 사용되고 있고, 氣를 소통시켜 주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氣의 소통과 관련된 효능은 聽會穴이 手少陽三焦經의 脈氣가 發하는 곳과 交會하고 있는데서 그 기능을 유추해 볼 수 있다<sup>4)</sup>. 즉, 三焦가 전신의 氣를 소통시켜주는 기능에 힘입어 氣의 소통과 관련된 기능을 가지게 되고, 특히 聽會穴이 속한 膽經의 鬱滯된 火를 소통시켜 줌으로 인해 鬱火로 야기된 耳聾과 顛腫을 치료할 수 있게 된다.

### [原文]

擯竹 頭維, 治目疼頭痛 ; 乳根 兪府, 療氣嗽痰哮.

### [解釋]

攢竹穴과 頭維穴은 目疼과 頭痛을 치료한다.  
; 乳根穴과 兪府穴은 氣嗽와 痰哮를 치료한다.

**[考察]**

- (1) 攢竹穴과 頭維穴은 散風鎮驚, 清熱의 효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눈과 관련된 질환을 치료하는 要穴이다<sup>4)</sup>. 이상의 2穴의 효능을 근거로 할 때 본 조문의 目疼과 頭痛은 火熱이 上逆하여 나타나는 증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 (2) 乳根穴과 兪府穴은 모두 止咳平喘의 효능이 있으며, 특히 兪府穴은 和胃降逆하는 효능이 있다<sup>4)</sup>. 이상의 2穴의 효능을 근거로 할 때 본 조문의 咳嗽와 哮喘症은 胃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胃는 인체에서 腐熟기능과 降濁기능이 있는데, 이러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면 체내에 필연적으로 痰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조문의 咳嗽와 哮喘症은 胃의 기능 저하로 발생한 痰이 주요 병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原文]**

風市' 陰市, 驅腿脚之乏力 ; 陰陵' 陽陵, 除膝腫之難熬.

**[解釋]**

風市穴과 陰市穴은 다리의 힘이 없는 증상을 몰아낸다. ; 陰陵泉穴과 陽陵泉穴은 무릎이 부어 참기 힘든 것을 제거한다.

**[考察]**

- (1) 風市穴은 祛風化濕, 疏通經絡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中風半身不遂, 下肢痿痺, 麻木, 脚氣 등을 치료하고, 陰市穴은 溫經散寒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腰脚如冷水, 膝退無力 등을 치료 한다<sup>4)</sup>. 한편, 腿脚乏力에 대해 「玉龍歌」에서는 風濕에 의한 것으로 표현하면서 灸法을 쓸 것을 제시하였다<sup>2)</sup>.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본 조문의 腿脚乏力症은 陽氣의 虛로 인해 발생한 寒症이고 兼하여 氣虛로 인해 津液을 推動하지 못하여 발생한 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2) 붓는 증상이 발생하는 데는 크게 2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熱이 울체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實證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氣의 소통이 이루어 지지 못하여 국소부위에 진액이 정체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虛證에 속하는 경우다. 본 조문의 膝腫은 虛證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니, 陰陵泉과 陽陵泉을 사용한 것을 그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陰陵泉穴은 足太陰脾經의 合穴이다. 脾는 運化기능을 주관하며 아울러 統血의 기능이 있으므로, 足太陰脾經의 合穴인 陰陵泉穴은 脾의 運化작용을 촉진시키며 統血하는 효능으로 국소부위의 진액 순환 장애로 인해 붓는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다<sup>5)</sup>. 한편, 陽陵泉穴은 膀胱의 下合穴이며 八會穴 가운데 하나인 筋會이다<sup>4)</sup>. 下

## 「玉龍賦」에 대한 연구(1)

合穴은 소통과 운행을 주된 기능으로 하므로 진액을 저장하고 있는 膀胱의 下合穴인 陽陵泉은 진액의 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水腫의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膝者筋之府”<sup>7)</sup>라고 하였으므로 무릎의 병증에 筋會인 陽陵泉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原文]

二白<sup>(1)</sup>醫痔漏, 間使勦瘡疾; 大敦去疝氣<sup>(2)</sup>, 膏肓補虛勞.

### [注釋]

- (1) 二白 : 經外奇穴로 固脫消痔의 효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痔漏下血, 裏急後重, 脫肛 등을 치료한다.
- (2) 疝氣 : 고환이나 음낭이 커지면서 아프거나 아랫배가 켕기며 아픈 병증. 寒濕邪가 침범하거나 內傷으로 氣血이 제대로 운행하지 못하여 생기는데, 주로 足厥陰肝經과 任脈의 장애와 관련되어 있다.

### [解釋]

二白穴은 痔漏를 치료하고 間使穴은 瘡疾을 없앤다. ; 大敦穴은 疝氣를 제거하고 膏肓穴은 虛勞를 補한다.

### [考察]

大敦穴은 足厥陰肝經의 井穴이면서 厥陰經의 根穴이다<sup>4)</sup>. 주지하는 바와 같이 肝은 筋을 主하면서 升發과 疏泄의 기능이 있다. 본 조문에서 疝氣에 大敦穴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음낭은 宗筋이므로 음낭부위에 이상이 생긴 疝氣에 筋을 主하는 足厥陰肝經의 穴을 선택할 수 있다. 둘째, 根穴은 사지말단에 위치하고 있지만 각 경락의 순행을 따라 頭面 부위와 體幹의 병증을 치료할 수 있다. 그러므로 厥陰經의 根穴인 大敦穴으로써 체간부위의 병증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疝氣는 內因과 外因(寒濕)에 관계없이 氣血의 순환이 이루어 지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足厥陰肝經의 井穴인 大敦穴을 조절함으로써 肝의 升發, 疏泄기능을 회복시켜 결과적으로 氣血의 순환을 원활하게 조절해줌으로써 疝氣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다.

### [原文]

天井治瘰癧癧, 神門治呆痴笑詭.

### [解釋]

天井穴은 瘰癧과 癧疹을 치료하고, 神門穴은 痴呆로 (정신이 없어) 웃다가 울고 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 [考察]

神門穴은 手少陰心經의 輸穴과 原穴이면서 本部에 해당 된다<sup>4)</sup>. 標本 가운데 本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正氣를 補하는데 주로 이용된다. 한편, 原穴은 原氣와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原氣는 先天之精과 水穀之味에 의해 보충되는 後天之精을 아울러 말하는 것으로, 原穴은 체내에서 原氣의 원활한

소통을 도와주는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것이다. 또한, 心은 血을 주관하면서 인간의 정신활동을 주관하게 되므로 心血의 부족으로 인한 정신활동의 장애는 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神門穴은 精血부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痴呆증상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原文]**

咳嗽風痰, 太淵<sup>1)</sup>列缺宜刺 ; 疝羸喘促, 璇璣<sup>2)</sup>氣海當知.

**[解釋]**

風痰으로 인한 해수에는 太淵穴과 列缺穴을 刺針해야 한다. ; 다리가 여위면서 파리해지고 숨이 가쁜 증상에는 璇璣穴과 氣海穴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考察]**

(1) 본 조문의 咳嗽에 대해 「玉龍歌」에서는 寒痰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으니<sup>2)</sup>, 내용상으로 볼 때 본 조문의 咳嗽는 風寒邪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太淵과 列缺은 모두 手太陰肺經에 속하여 宣肺散邪, 止咳化痰, 扶正祛邪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로 肺와 관련된 질환들인 咳嗽, 氣喘, 咽喉痛 등의 질환을 치료한다. 두 穴 가운데 列缺穴은 15絡脈 가운데 하나이며 八脈交會穴 가운데 하나로 任脈과 通하여 八卦 가운데 離卦에 속하는 穴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絡脈은 表部의 상태를 반영하

는 것으로 邪氣가 表部에 침습한 상태를 표현하기도 한다. 더욱이 八脈交會穴로 八卦 가운데 火로 陽을 표현하는 離卦에 속하므로 表證을 조절할 수 있는 穴이다. 그러므로 風寒邪의 침습을 받아 이상이 생긴 表證의 咳嗽에 적합한 穴이라 할 수 있다. 한편, 太淵穴은 十二經의 本部에 해당되고 手太陰肺經의 原穴이므로<sup>4)</sup>, 外邪를 제거하는 列缺穴과 함께 邪氣를 제거함과 아울러 扶正의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咳嗽症을 치료하게 된다. 즉, 太淵穴과 列缺穴이 배합됨으로 인해 扶正祛邪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2) 본 조문에 나타난 다리가 여위면서 파리해지는 증상과 숨이 가쁜 증상은 그 원인을 腎과 관련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腎은 納氣의 기능이 있는데 腎虛로 인해 기운을 안으로 들이지 못하면 위로 숨을 헐떡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다리가 여위면서 파리해지는 증상은 해당 부위로 精血이 공급되지 못하여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런데 精血이 공급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精血 자체가 부족해서 나타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氣가 虛하여 精血을 推動할 수 있는 기능이 약화되어 나타날 수 있다. 본 조문의 증상은 숨이 가쁜 증상과 연결해 볼 때 腎氣虛로 인해 精血을 推動할 수 있는 기능이 약화되어 사지 말단으로 精血이 공급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 「玉龍賦」에 대한 연구(1)

수 있다. 이러한 증상에 璇璣穴과 氣海穴을 배합한 이유는 寬胸利肺, 止咳平喘하는 효능이 있는 璇璣穴로 標治를 하고, 益氣助陽, 調經固精하는 효능이 있는 氣海穴로 本治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4)</sup>.

### 【原文】

期門 大敦, 能治堅痲<sup>(1)</sup>疝氣 ; 勞宮 大陵, 可療心悶瘡癢<sup>(2)</sup>.

### 【注釋】

- (1) 痲 : 積聚의 하나로 배꼽부위의 筋脈이 팔뚝이나 손가락 혹은 활줄 같은 것이 생겨 켜기고 아픈 증상으로, 음식조절을 잘 못하였거나 脾胃가 傷하여 寒痰, 氣血이 몰려서 생긴다.
- (2) 瘡癢 : 「玉龍歌」에서는 “滿手生瘡痛不禁”이라고 하였다<sup>2)</sup>.

### 【解釋】

期門穴과 大敦穴은 견고한 痲症과 疝氣症을 치료한다. ; 勞宮穴과 大陵穴은 가슴이 답답한 것과 瘡癢(부스럼)를 치료한다.

### 【考察】

가슴이 답답한 증상은 대부분 기혈이 소통되지 못하여 발생한 內熱로 인해 생겨난다. 이에 비해 瘡癢는 대부분 邪毒이 血에 몰려 발생하므로 外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두 증상은 內因과 外因으로 구분이 되지만, 瘡癢의 증상이 手厥陰心包經이 流注하는 손바닥에 생

겼으므로 心과 관련된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心包는 그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心을 싸고 있으면서 心을 대신하여 邪氣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면서 心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므로 瘡癢의 증상이 발생한 손에 위치하면서 消腫止痒의 효능이 있는 勞宮穴을 자침하여 標治를 할 수 있다. 勞宮穴에 大陵穴을 배합한 이유는 大陵穴은 手厥陰心包經의 原穴인데, 原穴은 扶正祛邪의 효능이 있으므로 心의 기능을 도와 氣血을 소통시켜 줌으로써 흉부에 쏠린 氣血을 전신으로 소통시켜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치료하고, 아울러 勞宮穴과 함께 血에 몰려 있는 邪毒을 제거함으로써 消腫止痒의 효능을 배가시킬 수 있다.

### 【原文】

心悸虛煩刺三里<sup>(1)</sup>, 時疫瘡癢尋後溪.

### 【注釋】

- (1) 三里 : 『靈樞邪氣藏府病形』에서 “胃病者, 腹脹脹, 胃脘當心而痛, 上支兩脇, 膈咽不通, 飲食不下, 取之三里也.”라고 하였고<sup>8)</sup>, 「玉龍歌」에서 “忽然氣喘胸膈, 三里瀉多須用心.”<sup>2)</sup>이라고 한 것을 근거로 할 때 足三里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解釋】

心悸虛煩에는 足三里穴을 刺針하고, 時疫으로 인한 瘡癢에는 後溪穴을 찾는다.

### 【考察】

(1) 心悸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불안해하는 증상으로 七情內傷이나 心의 陰血이 부족할 때 혹은 水飲, 瘀血, 痰火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한편 虛煩은 陰이 虛한 상태에서 虛熱이 발생하여 나타나는 병증으로 가슴이 답답하게 달아오르는 것을 주 증상으로 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면, 본 조문의 心悸와 虛煩은 모두 陰血의 부족이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胃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 水穀이 腐熟되지 못하고 쌓여 체내에 濕熱이 발생한 것이 1차적 원인이 될 수 있고, 적체된 濕熱이 陰液의 모손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발생한 虛火가 2차적 원인이 되어 心悸와 虛煩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和胃健脾, 通腑化痰, 升降氣機의 효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胃痛, 嘔吐, 腹脹, 頭暈, 癲狂, 脚氣, 水腫, 心悸 등의 질환을 치료하는 足三里穴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足三里穴은 四海 가운데 水穀海인 胃의 所通穴이며, 足陽明胃經의 五輸穴 가운데 合穴에 속하고, 六腑下合穴의 하나로 胃의 下合穴에 속한다. 특히, 下合穴의 경우 六腑의 질환을 조절하는 것으로 疏通과 下行을 주된 기능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足三里穴은 胃의 腐熟기능을 도와 濕이 積滯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水穀之氣의 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체내에 氣血(영양)을 공급하여 陰不

足以 虛火가 발생한 질환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2) 時疫癘瘧은 外感 邪氣에 감축되어 발생한 질환이다. 그러므로 清心解鬱, 清熱截瘧하는 효능이 있어 熱病, 瘧疾, 頭項強痛 등의 질환을 치료하는 後溪穴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後溪穴은 八脈 交會穴 가운데 하나고 督脈과 通하고 있다. 督脈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가 傷寒 熱病으로 발생하는 項背 부위의 질환을 치료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後溪穴은 外感 邪氣로 인해 발생한 外感性 질환을 치료하는 要穴이라 할 수 있다<sup>4)</sup>.

### [原文]

絕骨<sup>1)</sup> 三里<sup>2)</sup> 陰交, 脚氣宜此; 睛明<sup>3)</sup> 太陽<sup>4)</sup> 魚尾<sup>5)</sup>, 目症憑茲.

### [注釋]

(1) 太陽, 魚尾: 두穴 모두 經外奇穴로 太陽穴은 目外眦 바깥쪽 1寸 凹陷부위이고, 魚尾穴은 눈썹 바깥쪽 끝 부위이다.

### [解釋]

脚氣症에는 마땅히 絕骨穴, 足三里穴, 三陰交穴을 사용해야 한다.; 눈의 병증에는 睛明穴, 太陽穴, 魚尾穴을 사용해야 한다.

### [考察]

본 조문에 제시된 目症에 대해 「玉龍歌」에서는 “兩眼紅腫痛難熬, 怕日羞明心自焦, 只刺睛明魚尾穴, 太陽出血自然消.”라고 하여<sup>2)</sup>, 火熱로

## 「玉龍賦」에 대한 연구(1)

인한 질환임을 밝히고 있다. 붓는 증상은 氣가 虛하여 津液을 유통시키지 못하여 津液이 停滯되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붉은 색을 띄면서 붓는 증상은 火熱이 鬱結되어 나타나는 증상이다. 또한, 통증은 그 원인이 氣血이 소통되지 못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붉게 부으면서 통증이 함께 나타난 증상은 그 病因을 火熱이 鬱結되어 氣血이 소통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므로, 太陽穴을 刺絡하여 出血시킴으로써 鬱結된 火熱을 소통시켜 주고, 散風清熱, 明目退翳 시키는 효능이 있어 目赤腫痛, 目眇痒, 目視不明 등을 치료하는 睛明穴을 刺針할 수 있다. 아울러 魚尾穴을 자침하는데, 일반적으로 魚尾穴은 魚腰穴을 향해 透針하는 방법을 취한다. 睛明穴, 太陽穴, 魚尾穴은 모두 눈 주위에 분포되어 있어 火熱로 인한 눈의 제반 증상을 치료하는 要穴이다. 특히, 太陽穴에 刺絡요법을 쓴 것은 出血을 통해 氣血의 소통을 도와줌으로써 鬱結된 火熱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刺絡요법을 통해 出血을 시키는 치료법은 金元時代의 대표적 醫家인 張子和가 다용했던 방법<sup>9)</sup> 氣血소통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

### [原文]

老者便多<sup>(1)</sup>, 命門兼腎俞而着艾 ; 婦人乳腫, 少澤與太陽之可推.

### [注釋]

(1) 便多 : 「玉龍歌」에서는 “腎敗腰虛小便頻”<sup>2)</sup>이라고 하여, 小便을 자주 보는 것으

로 표현하고 있다.

### [解釋]

노인이 자주 小便을 볼 경우에는 命門穴과 腎俞穴에 뜸을 뜬다. ; 부인의 乳腫에는 少澤穴과 太陽穴을 쓸 수 있다.

### [考察]

- (1) 小便을 자주 보게 되는 증상은 腎이 虛하거나 肝氣가 몰렸을 때, 혹은 濕熱이 中焦나 下焦에 있을 때 나타난다. 그러나 대부분 腎陽이 虛하여 水液을 통솔하지 못하여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조문에서도 命門穴과 腎俞穴에 뜸을 뜨게 하여 腎陽을 溫補하는 치료법을 제시한 것이다.
- (2) 乳腫은 젖 몸에 생긴 종기를 뜻한다. 종기는 대부분 濕熱이 鬱結되어 나타나는 증상으로 치료법은 鬱結된 濕熱을 소통시키는 것이다. 氣血을 소통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刺絡요법을 통해 出血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太陽穴은 주로 刺絡요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太陽穴을 刺絡하여 出血시킴으로써 清熱消腫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少澤穴도 주로 出血요법에 많이 이용되는데 出血을 통해 活血止痛消腫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sup>5)</sup>.

### [原文]

身柱腧嗽，能除膂痛；至陽却疽，善治神疲。

**【解釋】**

身柱穴은 기침을 그치게 하고 등이 아픈 증상을 제거한다. ; 至陽穴은 疽를 제거하고 정신적인 피로를 잘 치료한다.

**【考察】**

기침을 하고 등이 아픈 증상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병인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風寒邪에 의한 外感으로 인식할 수 있다. 즉, 外感 表病을 지칭하는 것으로 주지하는 바와 같이 風寒邪에 감촉되어 발생하는 太陽病의 경우 頭項強痛, 項背強几几의 증상이 주로 나타나며<sup>10)</sup>, 兼하여 咳嗽의 증상이 나타난다. 둘째, 肺의 肅降·宣發기능에 문제가 생겨 氣가 아래로 소통되지 못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氣血의 소통에 문제가 생겨 濕痰이 부수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본 조문의 기침을 하면서 등이 아픈 증상은 그 病因을 무엇으로 인식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2가지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穴의 선택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니, 身柱穴은 督脈에 속하면서 그 위치가 足太陽膀胱經의 肺俞穴의 사이에 있다. 그러나 인접하고 있는 肺俞穴과는 달리 宣肺清熱, 寧神鎮驚하는 효능이 있어 氣血소통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咳嗽과 脊背強痛을 치료한다. 즉 肺의 宣發과 肅降기능을 도와 전신의 氣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胃의 降濁기능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病機를 조절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sup>5)</sup>.

이에 비해 肺俞穴은 解表宣肺, 肅降肺氣하는 효능이 있어<sup>4)</sup> 주로 外感 表病을 치료하는 穴로 알려져 있다. 이상의 身柱穴과 肺俞穴의 차이점을 통해 볼 때 본 조문의 咳嗽과 膂痛의 증상은 外感 邪氣에 의해 발생한 증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至陽却疽, 善治神疲”의 조문을 연계하여 편집한 부분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玉龍歌」에서는 “至陽亦治黃疸病”<sup>2)</sup>이라고 하여 至陽穴이 黃疸을 치료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黃疸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주로 체내에 濕熱이 積滯되어 발생하는 증상이다. 또한, 본 조문에서 제시한 “疽”의 증상도 氣血이 소통되지 못하여 생성된 濕熱에 의해 발생하는 증상이다. 이와 같이 黃疸이나 疽는 주로 체내의 濕熱이 문제가 되어 발생하는 병증이다. 그런데 본문을 편집하면서 “疽”의 병증을 咳嗽과 膂痛의 증상에 이어서 설명하였다는 것은 두 증상 사이에 상호 연계성이 있음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2가지 추론을 통해 볼 때 본 조문의 咳嗽과 膂痛의 증상은 肺의 宣發, 肅降기능 실조로 인해 체내에 濕痰이 생겨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至陽穴은 利膽退黃, 寬胸利膈하는 효능이 있어 黃疸을 치료하는 要穴이며, 아울러 체내의 濕痰이 적체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四肢腫痛, 喘促不寧 등의 질환을 치료한다<sup>4)</sup>. 그러므로 본 조문에서 정신적 피로를 치료한다고 한 것은, 七情傷을 의미하기 보다는 濕痰으로 인해 불편한 상태가 정신적인 부분에 까지 영향을

## 「玉龍賦」에 대한 연구(1)

미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原文】

長強<sup>1</sup> 承山, 灸痔<sup>(1)</sup> 最妙 ; 豐隆<sup>1</sup> 肺俞, 痰嗽稱奇.

### 【注釋】

- (1) 痔 : 「玉龍歌」에서는 “九般痔漏最傷人”<sup>2)</sup> 이라고 하였으니 痔漏를 뜻하는 것이다. 痔漏는 치루구멍에서 피고름과 진물이 흐르면서 가려우며 瘡口가 막혔다 터졌다 하면서 아프기도 하고 열이 나기도 하는 질환이다. 상태에 따라 虛實을 구분해야 하는데, 實證일 경우에는 濕熱을 제거하는 치법을 위주로 하고, 虛證일 경우에는 氣血을 補하면서 毒을 몰아내는 치법을 위주로 해야 한다.

### 【解釋】

長強穴과 承山穴은 痔疾에 뜸을 뜨면 (효과가) 가장 신묘하다. ; 豐隆穴과 肺俞穴은 痰嗽에 기묘한 효과가 있다.

### 【考察】

- (1) 痔漏는 濕熱이 下迫하여 나타나는 實證이 대부분이지만, 본 조문의 痔漏는 虛證에 속하는 것으로 陽氣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陰陽의 관계에서 陽은 升發하는 기능이 있는데, 陽氣가 虛하게 되면 氣가 下陷하여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본 조문의 痔漏는 바로 陽氣가 虛하여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로 灸

法을 통해 溫經시키면서 陽氣를 補하여 下陷된 氣를 끌어 올림으로써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承山穴은 下陷된 陽氣를 끌어올리는 효능이 있으므로<sup>4)</sup> 본 조문의 痔漏에 적합한 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長強穴은 督脈의 絡脈으로 足少陰腎經과 交會한다<sup>5)</sup>. 腎은 前陰과 後陰을 다스려 大小便의 기능 이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특히, 腎陽이 부족할 경우 大小便의 失禁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본 조문의 痔漏도 腎陽의 부족으로 야기되는 증상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足少陰腎經과 交會하면서 항문 부위에 위치하고 있는 長強穴에 뜸을 뜬으로써 腎陽을 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 (2) 痰嗽에 대해서 「玉龍歌」에서는 “咳嗽須針肺俞穴, 痰多宜向豐隆尋”<sup>2)</sup> 이라고 하여, 일반적인 기침의 증상에는 肺俞穴을 적용하고 痰이 많을 경우 豐隆穴을 적용한다고 하여 구분을 하고 있다. 肺俞穴은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解表宣肺, 肅降肺氣하는 효능이 있어 外感 表證의 기침을 치료하는 要穴이다. 이에 비해 豐隆穴은 足陽明胃經에 속하는 穴로 咳嗽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胃는 인체에서 降濁작용을 위주로 하면서 水穀을 腐熟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러한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체내에 濕痰이 발생하게 되고, 積滯된 濕痰은 喘證이나 咳

嗽를 유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정황을 염두에 둔다면 足陽明胃經의 絡穴인 豐隆穴을 刺針함으로써 胃의 기능을 조절하여 積滯된 濕痰을 풀어주고, 결과적으로 咳嗽症을 치료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 IV. 結 論

이상 「玉龍賦」의 일부를 고찰한 결과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총 46개의 穴(중복된 부분을 제외하면 40개)이 사용되었다. 그 가운데 絡脈(列缺, 豐隆, 長強), 六經根穴(大敦, 少澤), 本部(泰然, 神門, 三陰交), 四海(百會, 足三里(3회)), 五輸穴(大敦(2회), 勞宮, 太淵, 大陵, 神門, 間使, 陰陵泉, 少澤, 後癸, 天井, 足三里(3회), 陽陵泉), 下合穴(足三里(3회), 陽陵泉), 十二原穴(太淵, 神門, 大陵), 俞穴(肺俞, 募穴(期門), 八會穴(陽陵泉, 太淵, 絕骨), 八脈交會穴(後癸, 列缺)이 이용되었다.
2. 灸法은 총 4회 이용되었는데, 中風에 頂門穴과 百會穴, 腿脚乏力에 風市穴과 陰市穴, 老人의 小便多에 命門穴과 腎俞穴, 痔漏에 長強穴과 承山穴을 灸法에 이용하였다.
3. 刺絡요법은 2회에 걸쳐 기재되었는데, 目症에 太陽穴과 乳腫에 少澤穴과 太陽穴이 이용되었다.

4. 絡脈·下合穴·八脈交會穴·五輸穴·原穴 등은 四肢 末端에 위치하면서 藏府의 기능 저하에 의해 야기된 氣血의 鬱結상태를 조절하는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아울러 刺絡요법은 많이 보이지 않지만 出血을 통해 氣血소통의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 參 考 文 獻

1. 홍원식, 윤창렬. 증보 중국의학사. 서울 : 一中社. 2001 : 389-90, 510-11.
2. 黑龍江省祖國醫藥研究所. 鍼灸大成校釋.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5 : 233, 306, 290, 294, 299, 303, 305, 292-3, 301, 300.
3. 李忠九. 漢字部首 解說. 서울 : 전통문화연구회. 2000 : 144-5, 309.
4. 楊甲三. 針灸學. 台北 : 知音出版社. 民國 79(1990) : 398, 396, 107, 303, 147, 154, 165, 105-6, 399, 313, 174, 245, 289, 294, 370, 329, 301-2, 167, 104, 156, 182-3, 23, 170-1, 419, 408, 203, 70, 251-2, 389-90, 276.
5. 呂景山, 何樹槐, 耿恩廣. 單穴治病選萃.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6 : 354, 367, 97, 106, 340, 330-1.
6. 金振鎬, 任二彬, 方正均. 八會穴에 對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5 ; 18(3) : 37-8, 53.
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 57.

「玉龍賦」에 대한 연구(1)

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 東洋醫學 各家學說. 서울 : 대성의학사. 2001 : 217-8.  
研究院出版部. 1985 : 39.
9. 陳大舜, 曾勇, 黃政德 엮음, 맹웅재, 박현국, 20.  
박경남, 김남일, 신영일, 김용진 外 4인 옮김.